시 론

뉴욕에서 본 광주3

주 홍
치유예술가
샌드애니메이션 아티스트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들불야학 터 바로 옆에는 광천시민아파트가 있다. 고단했던 70년대, 광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이자 들불야학의 강학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 역사적인 장소는 이제 '그저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재개발해야 되는' 정비의 대상이 되어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윤상원, 박기순 열사가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고, 함께 공부하고 '오월광주'를 버티게 한 대동세상정신의 근원지 중 한 곳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돈이 먼저다. 건축허가도 심의도 모두 통과되어 이제 곧 밀어버리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니,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보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의지가 없는 걸까? 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단지 아파트 내 공원 부지를 설계할 때, 광천시민아파트를 포함시켜서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다면 한 개 동 정도는 보존해서 문화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무더웠던 지난 여름, 예술게릴라가 되어 토요일 오후에 광천시민아파트에서 예술가 친구들과 퍼포먼스를 했다. 뉴욕에 가기 전에 하루는 윤상원이 되어서 접신을 해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오월 아리랑-광주에서 온 선물'을 주제로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 뉴욕이라는 문화 헤게모니의 중심부로 가는 것! 먼저, 광주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낡은 아파트, 광천시민아파트를 찾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용가는 춤을 추며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를 기억했고, 음악가는 연주로, 화가는 드로잉퍼포먼스로 윤상원 열사를 기억했다. 그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퍼포먼스로 의식을 치렀다. 나는 세 명의 윤상원을 탁본형식으로 먹물을 찍어서 4.5m 흰 천위에 반복해서 그리고, 윤상원이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하며 붓으로 글을 썼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동안 윤상원이 되어 보았다. 드로잉퍼포먼스로 완성된 세 명의 윤상원은 강렬한 느낌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그 작품을 돌돌 말아서 뉴욕으로 가져갔고, 유니언스퀘어에서 완성했다.

유니언스퀘어는 연합국을 기념하는 공원이다. 그곳에 우리가 평화를 표현하러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공원 풀밭에서 그야말로 느긋한 모습으로 앉아 노닐며 오후를 즐기고 있었고, 달력 사진 속으로 들어온 듯 평화로웠다. 작곡가가 기념탑 앞에서 건반을 꺼내서 연주하자 흰 드레스를 입은 플룻연주자의 공연이 시작됐다. 기념탑 주변으로 공연을 보러 날아드는 새들은 어디서 그렇게 왔을까? 그리고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였다. 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주회! 그 주변에 둘러서 우리들은 천을 펼치고 그림을 그렸으며 춤꾼은 자연스럽게 춤을 췄다. 평화의 메시지를 적고 가는 미국 시민들과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동네 사람들은 이 뜻밖의 공연을 일상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멈춤'이 이곳에서도 일어났다. 나는 광천시민아파트에서 게릴라퍼포먼스로 그려온 세 명의 윤상원을 펴놓고 앉아 눈을 감았다. '만약 윤상원열사가 살아서 우리 시대에 이곳에 와 있다면 피리를 불었겠지? 그리고 이 그림에 무슨 말을 남길까?' 나는 붓을 들어 맨 위 여백에 써내려갔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 작품은 이렇게 뉴욕의 유니언스퀘어에서 완성되었다. 독주회와 걸개그림 퍼포먼스가 끝나자 우리는 기념탑이 있는 공원에서 나와 계단이 있는 광장으로 나왔다. 그곳은 지하철 입구가 바로 곁에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며, 한 쪽에서는 젊은 흑인이 춤을 추고 중앙에서는 광신도처럼 보이는 남자가 싸구려 마이크를 들고 설교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다. 내 눈에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예술로 보였다. 특이한 머리모양으로 지나가는 흑인 소녀까지도 모델의 런웨이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 시끄러움 속에 자리를 잡았다. 소음 속에서 건반을 꺼내 연주하고 자화상을 잘라 꽃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목에 묶어주며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었다. 손목에 장미꽃을 묶은 바이올리니스트는 활을 잡고 연주했고, 손목에 장미꽃을 묶은 플룻연주자는 손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 연주했다. 이번에는 전체가 즉흥이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 소음을 음악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나가던 빠른 걸음들이 느려지더니 멈추기 시작했고, 참여 작가들은 연주에 맞추어 유니언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을 했다. 광장에서 함께 추는 춤은 유니언스퀘어의 시공간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뉴욕의 광장에서 창조한 광주정신은 이렇게 눈부셨다.

현장칼럼

광주형 일자리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 영 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산업기반을 이루었던 대표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고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다보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영세 기업들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관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현대차 투자유치협상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화두는 '광주형 일자리'였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범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실체가 없다는 비난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민정간의 연대 협약이 이루어지고,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기준을 마련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빛그린산단에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노사민정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환영하고,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대한 바가 매우 컸다. 이 과정에서 노사민정의 연대, 특히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주시 사회통합 추진단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노동계의 현대차 투자 논의 불참에 이르게 된 것은, 추측컨대 현대차 투자 발표 이후 민선 6기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도출에 급급해 협상 내용이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임금수준도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있고, 협상 내용이나 투자 방식 등에서 노사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던 광주시 관련 부서도 참여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노동계의 반발을 가져온 것 같다.

만약을 가정한다면, 민선 6기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대차 투자 협상은 민선 7기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되고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행인 것은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동계가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라도 현대차의 투자관련 논의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에 입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독자투고

적색점멸등, 고장이 아니라 정식 신호체계

운전자라면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도심 외곽지역을 주행하다 보면 점멸신호등이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가 정상적인 일종의 신호체계인데도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점멸되고 있는 줄 알고 평소 운전 방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최근 국제적 표준과 같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이지만 분명한 점은 점멸신호등도 엄연한 일종의 신호체계라는 것이다.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 정지하느냐 마느냐의 사소한 차이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과실 100%가 인정돼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해당 보험사는 배상해야하고,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운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점멸신호가 고장이 아닌 안전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이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적색 점멸신호든 황색 점멸신호든 항상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핀 후, 양보와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오치영·광주북부경찰서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외국에서는 각종 테러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테러집단 IS의 끔찍한 동시다발 테러로 127명이 사망했다. 파리 테러는 민간인에게 저지르는 테러행위로 소프트 타깃으로 불린다.

국가나 정부기관에서는 외교적문제 등의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프트 타깃은 반정부 세력이나 개인에 의해 일어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장 괴한들이 극장과 축구 경기장, 식당 카페 등에서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 및 자살 폭탄 테러를 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곳은 '바타클랑극장'으로 이곳에서만 최소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미 테러집단 IS는 전력공급이나 사이버테러, 해킹시도 여부 등 디지털 사이버 테러도 가능하다. 테러위협이 전 세계에 상존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테러이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 일상에서 몇 가지 기본 보안대책을 강구해 다음 사항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화가 걸려온 경우 어떠한 개인신상정보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시 언제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병원 등 관련기관의 전화번호를 숙지해 놓아야 되고 장기간 외출 시 신뢰할 만한 친구나 이웃에게 부재 사실을 알리고 주기적인 주변 살핌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온 우편물이나 반송주소가 없는 경우 등은 언제나 의심을 해 보아야 되고 외국 여행 시 여행하고자하는 나라의 정치, 치안, 테러조직의 유무, 피해사례 등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여행 시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와 법규, 종교, 언어 등 사회 전반의 모습을 맞닥뜨리는데 긴급사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영사 콜센터 번호 (02-3210-0404)나 112로 즉시 신고 해주길 바란다. /소광영·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남도의 포근한 정과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길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 10일에서 5일로 다소 짧은 편이다. 그러나 올 추석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우선 지난 여름 폭염·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된 쌀 작황이 예년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오름세가 지속되던 주요 성수 용품 가격이 당국의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수급이 경색됐지만,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고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15.2% 많은 물량을 공급해 10대 성수품의 도매가격이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남북관계 급진전이다. 지난 18-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선언으로 한반도에 다가올 변화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깜짝 발표'까지 이어져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왔다.

남북 정상이 스포츠·문화 분야 교류를 약속하면서, 내년에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10월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예술단의 남한공연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 성사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고전하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 듯 국운이 상승하길 기대한다.

이번 추석에 모처럼 한데 모인 가족들도 희망을 가지고 포근한 정과 덕담을 나누는 화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도 낱낱이 밝혀져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범죄 피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5·18 문제는 발포명령자와 사상자 수 등 본질적인 쟁점에 집중돼 성범죄 피해는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계엄군이 여성들만 골라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어둑어둑한 야산에서 성폭행했다.", "계엄사령부 수사관이 대낮에 여관으로 데려갔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0년 광주에서 군이 자행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38년만에 처음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오는 10월까지 5·18 당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권한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가 수집한 가해자 관련 정보 등 군 내부 자료 60만 쪽도 이번 조사에 활용된다.

때 맞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범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려 진상규명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에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김선미 여성학자,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러한 공동조사단의 조사와 세미나 토론 결과가 5·18 당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법을 개정해서라도 책임자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픽 뉴스

작년 한국인 암 사망자 8만명 육박…통계작성 후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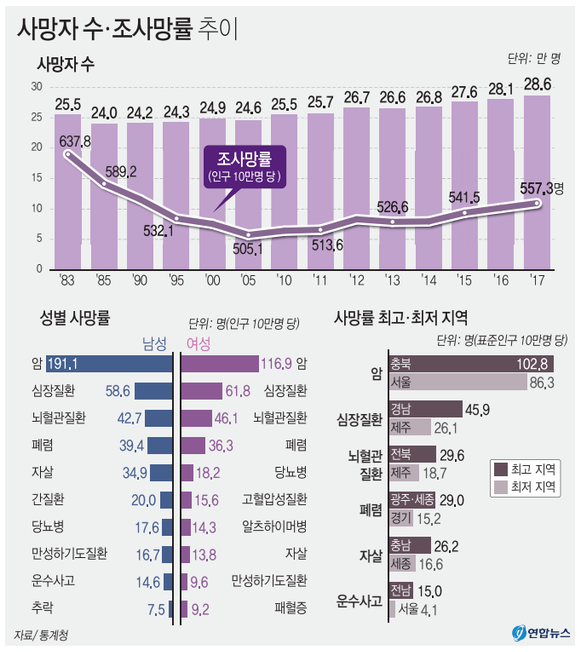
작년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통계작성 후 가장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2017년 사망통계원인'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행정기관에 신고된 한국인 사망자 수는 28만5천534명으로 2016년보다 4천707명(1.7%) 늘었다.

사망자는 1983년 사망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粗)사망률은 557.3명으로 2016년보다 7.9명(1.4%)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망자 수가 집계 후 가장 많아진 것이 고령층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10년 전보다 13.5%포인트 높았다. 원인별로 보면 암(악성신생물)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작년 암 사망자는 7만8천863명으로 통계작성 후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사망자의 약 27.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암 사망률은 153.9명으로 2016년보다 0.6% 증가했고 역시 집계 후 최대였다. 암 사망률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폐암(35.1명), 간암(20.9명), 대장암(17.1명), 위암(15.7명), 췌장암(11.3명) 순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 정치부 650-2030 / 경제부 650-2050 / 사회부 650-2040 /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 체육부 650-2065 / 사진부 650-2080 / 논설실 650-2006 /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 광고국 650-2072 / 경영지원국 650-2010 / 기획사업국 650-2079 /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 편집국 650-2017 /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